

기독교 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

신혜성** · 김준현***

루터대학교

【요약】

대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강의식 교육방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 미리 동영상, 교재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 강의 교육과는 반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 중 구약 신학을 중점으로 기존 강의식 교수법과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비교하고 신학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적용한 구약신학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수업에서 사전 학습이 충실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참여도 및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플립러닝 수업 중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전략을 통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사교력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 목회자인 대학생들이 플립 러닝을 통해 성서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교수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성서 이해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교육에서 플립러닝 수업의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교육에서의 플립러닝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수업을 통해 향상된 학습 성과나 신학의 이해도를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기독교교육, 구약신학, 플립러닝, 교수학습전략, 성서해석

* 본 논문은 2017년 루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루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저자 & 교신저자, hsbigtree@naver.com

*** 루터대학교 신학과, 공동저자, mentorclou@ltu.ac.kr

I. 서론

기독교교육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라는 명제를 인식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기독교교육은 모든 생명이 조물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상기시키고 생명의 근원과 본질을 알아 온전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한다.¹⁾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교육의 내용과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면이 있다.²⁾ Lewis는 기독교 교육은 실존적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도하고, 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기독교 공동체 회원들의 시도라고 하였다.³⁾

전통적으로 교회 교육은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지식과 내용을 교수자가 설명하고 학습자가 이해하는 강의식 교육방법에 근거하여 실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성경적, 신학적 원리가 실제 학습자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응용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성경의 내용과 원리를 지적으로는 이해하였으나 그것이 실제의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원리로 작동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며 실제화 시키는 반추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다.⁴⁾ 특히 대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강의식 교육방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수법이 주목받고 있다. 플립러닝이란 수업 전 미리 동영상, 교재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을 진

1) 김도일,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 탐구」, 『종교교육학연구』50, (서울: 종교교육학회, 2016), 48쪽.

2) 박은혜,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연구」, 『기독교교육논총』32,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361쪽.

3) 임영택, 『교회 교육 교수 학습론』 (서울: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5), 37쪽.

4) 함영주,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4, (서울: 개혁신학회, 2015), 417-418쪽.

행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 강의 교육과는 반대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불린다.

플립러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자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수동적인 형태로 교수가 설명하는 수업내용을 듣고 필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미리 학습하고 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학습자들 간 토론이나 팀 활동 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던 학습자들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하고 활발한 인지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일반 교과목의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운영 사례 연구 및 플립러닝을 통해 수업의 이해도, 참여도, 자아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신학 교육에서는 선교학 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을 응용한 토론식 수업⁶⁾, 플립러닝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탐구⁷⁾ 등의 연구만 진행되어, 기독교 교육에서의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교육 중 구약 신학을 중점으로 기존 강의식 교수법에서 학생이 먼저 학습을 하고 온 뒤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 방식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수업의 설계·운영을 통해 신학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

Flipped learning은 영어 동사인 Flip(책 뒤집다)의 수동형인 Flipped와 학습을 의미하는 Learning을 합성하여 Flipped Learning 또는 Flipped classroom으로 사용되며,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뒤집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⁸⁾

5) 임정훈,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32(1),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6), 167쪽.

6) 정기목, 「창의적 선교학 수업을 위한 연구 -Flipped learning을 응용한 토론식 수업」, 『복음과 선교』32,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5).

7) 김도일,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 탐구」, 『종교교육학연구』50, (서울: 종교교육학회, 2016).

8)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Flipped learning의 의의 및 교육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

플립러닝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전통적 수업에서 벗어나 사전 학습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플립러닝이란 기존의 교실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수업 전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동료들 간에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뒤집어 진행하게 되는 수업 방식⁹⁾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을 인터넷이 가능한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토론, 실습,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¹⁰⁾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학 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 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및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업체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수학습 방법¹¹⁾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플립러닝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강의 동영상이나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와 같은 타 교육기관이 제공한 e-러닝 콘텐츠를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주제에 대해 예습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나 심화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습성과 수준이 향상된다.¹²⁾ 플립러닝에서 주로 동영상 학습 자료가 강조되는 것은 인쇄 자료나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주의 집중력과 기억 유지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자로 읽거나 듣는 것보다 동영상의 경우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¹³⁾ 따라서 플립러닝에서는 학습자의 주의집중력을 향상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영상을 활용한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다.

플립러닝 실행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Hamdan, McKnight,

복합연구』12(9), (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315쪽.

9) 이정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토론 교육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12(4), (서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179-180쪽.

10)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Flipped learning의 의의 및 교육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12(9), (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316쪽.

11) 최정빈, 김은경, 「공과대학의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운영 사례」, 『공학교육연구』18(2), (서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5), 78쪽.

12) 최정빈, 김은경, 「공과대학의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운영 사례」, 『공학교육연구』18(2), (서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5), 79쪽.

13) 신정숙, 「발표 토론 동영상을 활용한 ‘거꾸로’ 교수법의 교육 효과 사례 분석 - 조선대학교 <사고와 표현1> 수강 학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8(3),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37쪽.

McKnight와 Arfstrom은 플립러닝 실행을 위한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 융통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 2) 실제적인 과제(authentic task)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문화(learning culture), 3) 의도된 학습내용(the intended learning content), 그리고 4) 전문성을 갖춘 촉진자로서의 교육가(Professional educator)를 포함하고 있다.¹⁴⁾

이러한 4가지의 구성요소를 갖춘 후, 적합한 교수 전략의 설계를 통해 플립러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텍사스 대학의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다섯 단계 구분을 따르기도 한다.¹⁵⁾ 수업 전, 수업 도입, 수업 중, 수업 후, 일과 시간 중의 총 5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내용은 <표 1¹⁶⁾>과 같다.

<표 1> 기존 수업과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 구조 및 활동내용 비교

구분	기존수업	플립러닝적용수업
수업 전	학습자에게 읽어야 할 과제 배정 교수자는 강의를 준비	학습자는 제공된 모듈에 따라 학습을 하고 내용 관련 질문은 기록해 둠 교수자는 여러 가지 학습내용을 준비
수업 도입	교수자는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함 학습자들은 기대학습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짐	학습자들은 (교수자에게) 그들 학습을 안내해 줄 특별한 질문을 함 교수자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예상할 수 있음
수업 중	교수자는 모든 학습 자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함 학습자들은 수업을 따라가려고 함	교수자는 피드백과 소규모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의 과정을 안내함 학습자들은 배워야 할 기능(skills)을 실습함
수업 후	학습자들은 보통 지연된 피드백을 받으며 숙제를 하려고 함 교수자는 지난 과제에 대해 평가함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명확한 설명과 피드백에 따라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계속 활용함 교수자는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추가적인 설명과 리소스를 제시하고 질 높은 작업에 대한 점수를 부여함
일과시간 중	학습자들은 공부한 것에 대한 확인을 원함 교수자는 종종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함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 교수자는 학생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함

14) 남창우, 박영희, 권종실, 「대학생의 ICT 자아효능감과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탐색」, 『교육혁신연구』27(2), (부산: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7), 26쪽 재인용.

15) 홍현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개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75쪽.

1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30(2),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4), 168쪽.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 본 다섯 가지의 단계를 모두 따르지 않고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플립러닝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은 주로 수업 전과 수업 중으로 구분되지만, 교수자에 따라 수업 후에도 부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 후에는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SNS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밴드 같은 SNS를 사용할 경우 수업이 종료되었더라도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수시로 공지사항을 안내하거나 학습활동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이 가능하며, 또한 수업 도중에 논의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토론도 가능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 중에 산출한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상호 공유와 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¹⁸⁾

플립러닝을 시작한 조나단 버그만(Bergmann, J)과 아론 샘즈(Sams, A)에 의하면 플립러닝이 융통성 있는 환경, 학습 문화, 의도적인 학습 내용, 전문적인 교수자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¹⁹⁾

플립러닝은 먼저 융통성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방식을 허용한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협력학습을 하거나 개별학습을 하도록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습 공간을 물리적으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플립러닝의 특징이다. 둘째, 교사가 중심인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교사는 정보의 원천이 되지만 플립러닝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같은 시간에 학습자는 더 깊이 탐구하고 학습 기회를 만들어가고 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학습을 해 나간다. 따라서 플립러닝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문화로 바뀌는 것을 돕는다. 셋째, 플립러닝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융통성 있게 개념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플립러닝 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교사는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어떤 자료들을 탐색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교사들은 학습자 중심, 활동적 학습 전략, 학년 수준과 교과를 수용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의도적인 학습 내용을 사용한다. 넷째, 전통적 수업방식에서 보다 플립러닝은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적

17) 김보경, 「교직 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모형 개발」, 『교육종합연구』12(2), (서울: 교육종합연구) ; 임정훈,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32(1),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6), 173쪽 재인용.

18) 임정훈,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32(1),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6), 173쪽.

19) Flipped learning network, "what is Flipped learning"(FLN, 2014); 이희숙, 강신천, 김창석, 「플립러닝 학습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18(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49쪽 재인용.

교수자가 요구된다. 플립러닝 학습에서 교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주거나 학생들의 과업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²⁰⁾

2. 기독교 교육의 플립러닝 선행연구

플립러닝 관련 해외의 연구들은 그 대상이 거의 대학교 수업에 집중되어 있고 초등부터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장 교사들의 실천 보고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교 수업 대상 연구들의 경우 과학, 컴퓨터, 통계학, 경영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²¹⁾ 또한 국내에서도 교육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플립러닝이 운영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운영되거나 논의되는 기독교 교육의 플립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함영주²²⁾는 플립러닝을 소개하고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경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독교 교육에서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이 교회에 오기 전 가정에서 성경의 내용에 대한 1차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게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의 원리를 찾아 실행하도록 돕는 플립러닝의 교육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인적인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플립러닝은 자기 주도적 성경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비평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우며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정기묵²³⁾은 플립러닝을 응용한 토론식 수업을 선교학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수업 전에 익히고, 수업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 부분을 미리 준비된 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수업에서는 학생들 각자가 미래 목회와 선교를 위한 창의적 전략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플립러닝을 응용한 토론식 협력학습을 운영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그룹 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

20) 이희숙, 강신천, 김창석, 「플립러닝 학습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18(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49-50쪽.

21)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30(2),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4), 169쪽.

22) 함영주,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34, (서울: 개혁신학회, 2015).

23) 정기묵, 「창의적 선교학 수업을 위한 연구 - Flipped learning을 응용한 토론식 수업」, 『복음과 선교』32,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5).

용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소통과 협력하는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도일²⁴⁾은 플립러닝과 아틀리의 심리학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인간 삶의 온전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플립러닝은 기독교교육학의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기하고 있고, 기독교교육현장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전문성 속에서 영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역할로 보았다.

손경순²⁵⁾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기독교 통일교육의 이론적 바탕을 정립하고 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플립러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일과 여름성경학교 2박 3일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교회 부서실에서만 이루어지던 교회 교육의 공간적 개념을 빼내어 평일(주일 이외)과 가정(교회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교육의 시·공간적인 개념을 확장시켰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에서 플립러닝의 운영을 위한 설계 방법과 실제 적용을 통해 플립러닝의 신학적 교육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수업 설계

본 연구는 신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플립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수업 설계를 연구의 한 단계로 추가하고 심도 깊게 연구하였다.

플립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업 전’ 단계에서의 학습 자료로 강의 동영상에 주로 활용된다.²⁶⁾ 강의 동영상의 적정 수준 및 신학과 학생들의 수업 수준 등을 파악하

24) 김도일,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 탐구」, 『종교교육학연구』50, (서울: 종교교육학회, 2016).

25) 손경순, 「거꾸로 교실 수업모형을 활용한 기독교 통일교육의 실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6) 김성수,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23(1), (인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기 위해 기존 플립러닝에 대한 문헌 연구를 비롯하여 2017학년도 1학기(3월~7월) 구약신학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에 따라 수업은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구약신학’ 교과목을 선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시험, 발표 등을 제외하고 총 10주차를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5강씩 구분했다. 중간고사 이전 5주는 강의식 수업, 중간고사 이후 5주는 플립러닝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플립러닝 수업의 설계는 김영학²⁷⁾이 제시한 수업설계의 방식을 기반으로 본 수업에 맞도록 일부 변형하였으며, 수업 단계를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설계하여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구약신학 수업 설계 방법

구분	교수자	학습자
수업 전	수업 전략 수립(수업 목표, 학습의 주안점, 교수자의 역할 등) 수업 자료 제작(동영상 촬영 때 사용할 PPT 및 수업 도구) 동영상 강의 촬영 클래스팅 게시판에 강의 영상 등재 수업 활동 선정 등	수업자료와 교재 읽기 클래스팅에서 강의 시청 및 강의 내용 요약하여 댓글 달기
수업 중	지난 수업 요점 환기 수업 자료 제공(빈칸) 및 정답 확인 강의 동영상 관련 질의응답 필요 시 미니 강의 제공 동영상 강의 시청 당부	동영상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수업 자료 빈칸 채우기 동영상 강의 질문에 대한 응답 동영상 강의 내용 중 의문점 수업 소감 발표 및 수업 내용 의문점 질문
수업 후	수업 평가 및 클래스팅 관리(수업 내용 정리와 다음 수업 안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추가 학습 후 질문사항 발생 시 클래스팅 게시판 이용

또한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당 수업을 팀티칭으로 운영하여 주 교수자는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수자는 학생들의 개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다음 수업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7) 김영학, 「대학 <사고와 표현> 교과에 대한 플립 러닝 적용 사례 연구」, 『한민족어문학』72, (한민족어문학회, 2016).

2. 수업 운영

본 연구는 경기도 L대학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구약신학’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2017년 8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하였다.

1) 수업 전

수업 전 배워야하는 주차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의 사전 학습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습 자료는 수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주교재를 활용한 강의 요약 형태의 PPT를 제작한 후, 자료를 바탕으로 매 수업 5-7일 전 노트북을 활용해 교수자의 연구실에서 PPT에 탑재되어 있는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였다.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주차별 1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저자가 해석하고 있는 구약신학에 대한 강의를 약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PPT를 기반으로 교수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강의 영상은 본 수업에서 활용하는 공개 온라인 LMS인 클래스팅(classting)²⁸⁾을 활용하여 구약신학 클래스에 강의동영상을 탑재하였다.

사전 학생들의 강의 영상 시청을 독려하고 확인하기 위해 본 수업에서는 동영상을 시청 한 후 강의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요약을 1~2줄로 요약하여 댓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구약신학 플립러닝 운영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28) 클래스팅(www.classting.com)

2) 수업 중

사전 동영상 시청 및 교재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한 만큼 강의 설명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학생 개인의 구약 신학 이해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강의 동영상을 바탕으로 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였다. 해당 수업 자료에는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빈칸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주차의 강의 동영상 및 교재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빈칸 채우기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주 교수자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교수자는 학습자 개인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플립러닝 1주차 수업에 대한 피드백에서 빈칸 채우기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으로 2주차부터 강의 동영상 및 해당 주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증대시켰다. 경우에 따라 학습 이해도가 낮거나 공통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경우 주차별 학습 내용에 대한 교수자의 미니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가 종료될 때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 소감을 통해 수업을 평가하고 다음 차시 강의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당부했다.

3) 수업 후

수업이 종료된 후 두 명의 교수자가 간단한 회의를 통해 수업 운영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다음 차시 플립러닝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 및 문제 사항 발생 시 해소를 위해 수시로 클래스팅 게시판을 모니터링 하여 자기주도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3.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L 대학교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개설된 ‘구약신학’ 전공과목으로 1) 1,2,3학년 교과과정에서 구약통독과 입문 수업을 수강한 자, 2) 구약신학 교과목의 Flipped learning 수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약 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신학 과목에서의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방법 및 학업 동기, 수업 집중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플립러닝 수업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약신학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총 6명이나, 면담에 불참한 학생 1명을 제외하고 총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었으며, 학년으로는 3학년 1명, 4학년 4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학과	학년	성별
1	A	신학과	4	남
2	B	신학과	3	남
3	C	신학과	4	여
4	D	신학과	4	여
5	E	신학과	4	남

4. 자료 조사 및 분석

15주차 수업이 종료된 12월 5일 출석한 5명의 학생에게 포커스 그룹 방식으로 약 1시간 정도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 내용을 속기하였다.

주요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형 질문으로 “플립러닝의 교육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무엇인가”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면담 질문으로는 “플립러닝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기존 강의식 교육을 들을 때와 플립러닝 교육을 들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플립러닝 수업 개선을 위한 사항은 무엇인가” 등이 포함되었다.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반복하여 읽으며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를 군집하고 범주화하여 이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을 다시 총체적으로 읽고 반복하며 범주와 사례를 재조정하고 범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구약신학을 통한 플립러닝 수업 운영에 대해 학습효과, 플립러닝 교수학습 전략과 효과, 신학교육에서의 플립러닝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학습효과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여 플립러닝 수업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이 수업 전 사전 학습시간, 수업 후 복습 시간을 포함하여 약 30분~1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몰입과 참여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참여도면에서는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기존에 했던 그 강의형식은 어쨌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습을 해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주니깐 저희가 듣고 PPT를 보고 그러니깐, 수업 참여나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기존 꺼보다는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응답자 A)”

“강의식으로 하면 제가 예습 안 해오는 스타일이어서 예습 하나도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고, PPT 조금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걸 예습과 복습을 필수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습을 하니깐 공부하는 시간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야 하나?(응답자 D)”

“저는 강의식으로 볼 때 PPT만 보고 이 시간이 집중력이 안됐을 텐데, 강의 듣고 와서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다시 교수님 강의 들으니깐. 그렇게 한 세 번 반복하니깐 집중이 잘되고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응답자 E)”

한편, 사전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어 역으로 집중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제가 언제 한번 못 들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따라

갈 수가 없는거예요. 물론 듣고 있어도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이 분들이 들었던 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가 없는거예요(응답자 B)”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집중 면에서는 약간 풀어진다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제가 책을 봤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시간이 안되서 책을 못 봤거든요. 그때 확실히 책을 봐야 효과가 있고 더 질문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수업시간에 결석하더라도 학습을 이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 되쳐지지 않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플립러닝의 수업 방법은 사전 학습에 충실한 학생들은 수업 이해도, 학습 몰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플립러닝 교수학습 전략과 효과

수업에 활용한 동영상, PPT, 교재, 질의응답, 미니 강의 등의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댓글과 토론을 통해 사고력이 확장되었다.

“제도적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 내용을 우리가 답글을 달아야 하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몰입해서 숙지할 수 있는 의무지만 우리에게 더 유익한(응답자 C)”

“계속 하다가 듣고 궁금증이, 말도 안 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교수님께 몇 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나서는 그래도 질문거리가 되게 많아지고 궁금하기도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을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응답자 A)”

교수학습의 전략 방법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동영상을 보고 내용 요약이 아닌 질문거리를 적는다거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서로 코멘트를 달아서 유지하는 방법, 동영상뿐만 아니라 MP3 파일 제공을 통한 학습 증대 등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교수님이 클래스팅을 들어가면 동영상이 떴잖아요. 바로, 근데 다운 받아서 하니깐 AVI 파일을(동영상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계속 들으니깐, MP3로 하는 게 확실히. MP3로 하면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PPT를 보면서 할 수도 있으니깐. 저도 가끔씩 자다가 틀어놓고 보면 되게 기억력 좋아 진다해서 틀어놓고(응답자 E)”

“댓글에다가 요약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달면 답장을 달아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듣고 수업시간에 딱 (응답자 B)”

“한 사람당 하나씩 질문거리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응답자 C)”

3) 신학교육에서의 플립러닝 필요성

기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여 플립러닝이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경 구절의 해석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며,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인식했다.

“제가 4학년 저희 학교 다녀보니까 이번 학기처럼 재미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가 막 토론시간이 없었잖아요. 특히 신학과 수업은. 근데 이 수업은 토론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깐 되게 말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의견도 많이 듣게 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는 대학원을 가야하니깐 대학원은 토론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응답자 D)”

“이번 학기에 설교학(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한 또 다른 과목)도 실습하는 게 많아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생각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응답자 E)”

또한 수업이 4학년에 제한된 것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성경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이걸 만약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이게 계속 질문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질문을 하면 일단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확실히 질문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듣고 궁금해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싶어

한다는 거고, 그런 거에서는(응답자 A)”

“이 강의는 1학년은 구약통독이나 신약통독이나 이론을 기반을 두잖아요. 이 단계는 이론에 대한 뿌리를 잡고 2학년 때부터 하면, 자기네들끼리 책을 보면서 이것만 책을 보면서, 그 뿌리는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응답자 E)”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플립러닝의 단계는 공부의 초입인 것 같아요. 공부의 수준의 단계에서는, 사실은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교육방법이 다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하는 주입식 교육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듣기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처음 다가가기에 수월할 것 같아요. 고학년을 갈수록은 수준이 있어서 책도 한 번 더 봐야하고 이거를 한 거를 정리를 해야 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깐 공부의 단계를 좀 더 수준 있게 높아져 가야되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단계는 좀 초반부에서 대학을 시작할 때 기초단계로.(응답자 D)”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 중 구약 신학을 중점으로 기존 강의식 교수법과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비교하고 신학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적용한 구약신학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수업에서 사전 학습이 충실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참여도 및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및 교재 등의 사전 제공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의 경우 본 교과목에 투자하는 학습 시간이 기존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여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학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플립러닝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전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보고나서 풀 수 있는 퀴즈를 제시한다든가 사전 학습에 대한 참여 점수를 산정하는 제재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플립러닝 수업 중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전략을 통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사고력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전, 동영상 시청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업 중에는 질문과 토론을 통한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 후에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클래스팅을 통해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이 수업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질문거리를 도출하고 질문에 대한 학생들 간의 코멘트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심도 있고 효과적인 수업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강의식 수업에 비해 플립러닝의 수업 형태가 성서를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는 성서해석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들을 통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도들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서 해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구약성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등 일반적으로 줄거리를 중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구약성서를 학습할 때는 그 내면에 중심을 이루는 학문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 강의식 방법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참여도도 매우 낮았으나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한 이후로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이해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비 목회자인 대학생들이 플립 러닝을 통해 성서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교수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성서 이해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교육에서 플립러닝 수업의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교육에서의 플립러닝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수업을 통해 향상된 학습 성과나 신학의 이해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수많은 교육 중 구약신학 1과목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전체 학년이 아닌 구약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에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교육적 의의를 일반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 및 전체 학년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의 후속 연구 및 중간 평가나 만족도 등에 측정을 포함한 연구 방법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 강성열, 『구약성서와 오늘의 삶(I)(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구본혁, 「MOOC을 활용한 플립 러닝의 효과성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기동연, 「구약시대의 공적인 형태의 신앙교육」, 『성경과 신학』17,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5), 35-67쪽.
- 김도일, 「역전학습을 통한 온전성 형성의 기독교교육적 가능성 탐구」, 『종교교육학연구』50, (경북: 종교교육학회, 2016), 47-69쪽.
- 김보경, 「교직 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모형 개발」, 『교육종합연구』12(2), (서울: 교육종합연구, 2014), 25-56쪽.
- 김성규, 『구약성서 역사와 전승』, (서울: 기독교정문사, 1993).
- 김성규, 『성서신학의 새 진로』, (서울: 기독교정문사, 1994).
- 김성수,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23(1), (인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259-550쪽.
- 김영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지원시스템 설계 원리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영학, 「대학 〈사고와 표현〉 교과에 대한 플립 러닝 적용 사례 연구」, 『한민족어문학』 72, (경북: 한민족어문학회, 2016), 149-181쪽.
- 김윤영, 「수업기본원리를 적용한 플립드 러닝 개발 및 효과 검증」,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찬국, 「구약신학의 이해」, 『기독교사상』17(8), (대한기독교서회 1973), 136-138쪽.
- 남창우, 박영희, 권종실, 「대학생의 ICT 자아효능감과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 탐색」, 『교육혁신연구』27(2), (부산: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7), 23-48쪽.
- 박은혜,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연구」, 『기독교교육논총』32, (충남: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357-383쪽.
- 손경순, 「거꾸로 교실 수업모형을 활용한 기독교 통일교육의 실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신문철, 박문옥, 「기독교적 상상력을 활용한 성서학습모델」, 『기독교교육논총』29,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87-122쪽.

- 신정숙, 「발표 토론 동영상 활용한 ‘거꾸로’ 교수법의 교육 효과 사례 분석-조선대학교 <사고와표현1> 수강 학생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33-163쪽.
- 유은희, 「구약의 지혜서 이해와 지혜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46,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5), 63-99쪽.
- 이정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토론 교육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12(4), (대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177-209쪽.
-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Flipped learning의 의의 및 교육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12(9), (충남: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313-323쪽.
-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30(2),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4), 163-191쪽.
- 이희숙, 강신천, 김창석, 「플립러닝 학습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18(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5), 47-57쪽.
- 임영택, 『교회 교육 교수 학습론』 (서울: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85).
- 임정훈,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32(1),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6), 165-199쪽.
- 장일선, 「구약신학의 성격과 방법론」, 『신학연구』23, (한신신학연구소, 1981), 167-182쪽.
- 정기묵, 「창의적 선교학 수업을 위한 연구 -Flipped learning을 응용한 토론식 수업」, 『복음과 선교』32,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5), 155-186쪽.
- 최정빈, 김은경, 「공과대학의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운영 사례」, 『공학교육연구』18(2), (서울: 한국공학교육학회, 2015), 77-88쪽.
- 한스 웨버, 「신학의 새 정황과 성서학」, 『기독교사상』16(10), (대학기독교서회, 1972), 138-147쪽.
- 한형중,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대학 역전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31(1), (서울: 한국교육공학회, 2015), 1-38쪽.
- 함영주,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34, (서울: 개혁신학회, 2015), 415-441쪽.
- 홍현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Childs, Brevard 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Flipped learning network, “what is Flipped learning”(FLN, 2014).
- Fohrer, Georg,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Nashville: Abingdon, 1973).

Graf Reventlow, Henning, *Problems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SCM Press, 1985).

Graf Reventlow,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1986).

Jacob, Edmo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Harper & Row, 1958).

Westermann, Claus, *Elements of OT Theology* (Atlanta: John Knox, 1982).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12일 심사일: 201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연구자소개: 신혜성

① 전공: 교육공학 / 소속: 루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② 관심영역: 교육, 교수-학습

③ 주요논저: 「L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 분석」

④ E - mail : hsbigtreet@naver.com

연구자소개: 김준현

① 전공: 신학(구약학) / 소속: 루터대학교 신학과

② 관심영역: 예언서

③ 주요논저: 『한 눈에 보이는 구약성경』, 『필수히브리어문법(역)』

④ E - mail : mentorclou@ltu.ac.kr

Abstrac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lipped Learning in Christian education

Shin, Hye-Seong · Kim, Jun-Hyun

Luter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often employs the traditional method of lecture presentation. This time-honored education style is very good at delivering the lecturer's knowledge to listeners. However, it is weak when it comes to checking the students' attitudes. Questions such as:

- how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each student may be,
- how students themselves interpret the biblical text at hand,
- whether they accept the text as written or presented,
- how well they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lectures,

and the like cannot be determined (much less addressed) when the instructor utilizes traditional lectures alone.

To overcome this weakness, Flipped Learning has been gaining popularity recently, not only in specifically Christian education processes but in general education contexts as well. Flipped Learning requires students to do so called pre-self-study before the class period. This pre-self-study can involve watching video clips (usually 15-20 minutes), reading the textbook, and so on. Since students learn the basic content of the lecture ahead of time through their own study, classroom time can incorporate much more interactive styles of instruction than traditional lecture. Flipped Learning classes can focus on comprehension, assimilation, and application, rather than the mere transmission of data. Thus the Flipped Learning method is a counterpoint to the traditional lecture style.

This paper evaluate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teaching Old Testament Theology in the context of university-level Christian education. It compares and contrasts traditional lecture style methods and the Flipped Learning style, and also considers the educational meaning and value of Flipped Learning in Christian education overall. To achieve these ends, this paper describes the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to an Old Testament Theology course, both in

syllabus design and in classroom managemen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1) A “Flipped Learning course” needs a teaching strategy that encourages students to actually and diligently do their pre-study, because when the students do their pre-study, they are better able to participate in and focus on the classroom session learning objectives, than they would with a traditional lecture alone.

2)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ourse is increased, and their ability to cogitate upon the content is expanded, because of the various interactive lecture strategies employed in Flipped Learning.

3) Flipped Learning techniques need to be applied more frequently in Christian education overall, because students exposed to these methods have demonstrated both an increased knowledge, and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Bible. Such benefits were honed through their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of one another during classroom session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n this way, students preparing for pastoral ministry gain experience in fielding questions similar to those their congregations will pose. Future Christian leaders benefit greatly from learning to “ask the Bible questions” themselves...and learning to find the answers on their own. Their Bible professors won’t always be available to answer the questions for them!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learning how to operate an applied Flipped Learning course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Follow-up study will be essential since it is notoriously difficult to “objectify” the teaching of theology—how does one translate a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ology into course grade numbers? How do you quantify the learning outcomes, or measure the degree to which a student has improved by the end of the course? Such further issues should prove fruitful fields for exploration and discussion.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Old Testament Theology, Flipped Learning, Interpreting Bibl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